

한국타이어 인터뷰

—

Tire의 혁신으로
드라이빙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열정은 불가능과 맞서고 혁신은 경계를 넘나든다.
오직 가치있는 기술만이 지속 가능한 드라이빙을 만들 수 있다.
한국타이어의 기술력은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



Contribute to Advancement in Driving

한국타이어의 미션은 'Contribute to
Advancement in Driving'입니다.

한국타이어를 선택한 모든 드라이버
가 최상의 드라이빙을 즐기고
거침없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외에도
다른 다양한 연구분야도
넓은 시야로 본다면
좋겠습니다.

김창용

고려대학교(석사) 융합기계공학과

Q.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A 한국타이어는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되기 위해 휴일 없는 달마다 Proactive Fri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active Friday는 직원들이 업무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창의적인 활동과 생각을 하며 창의적 역량을 자유롭게 높일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와 Balance day를 통해 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를 최적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Proactive한 기업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A 제가 하고 있는 일은 CAE를 이용하여 타이어 제조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최적 공정 조건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타이어 제조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여 최종 생산된 타이어의 성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사내 스터디 모임 등 지속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A 한국타이어에는 스터디 모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장려하는 COP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사우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연구소)를 최종 선택하게 되신 동기는?

A 타이어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재료를 포함한 복합재료의 결정체입니다. 고분자 재료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복합재료의 원료부터 최종 생산 공정까지 다뤄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석사과정의 연구 주제와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타이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회사(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연구소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진 레지던스(기숙사)도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1인 1실의 환경이라는게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도 사내에 있는 Fitness center 및 보건실, 도서관등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Q. 대학원 때 연구주제와 현재 회사(연구소)에서 하는 주제와의 연관이 있는지?

A 저는 석사과정 동안 가공기술을 통해 생분해성 고분자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가공 공정 조건을 최적화시키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타이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수행하게 된 업무도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매우 생소했었어요. 제가 해왔던 연구들과는 마냥 동떨어져있다고만 생각했죠. 지금 드는 생각은, 사용하는 Tool과 하는 일이 조금 달라보여도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타이어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서 최종 결과물의 물성을 높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Q. 하루 일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A 레지던스에서 나와서 연구소까지 3분도 안되는 거리가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는데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일단 레지던스에서 나와서 지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죠. 출근 후에는 커피 한잔을 뽑아서 당일 할 업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무를 모두 마치고 퇴근시간이 되면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Fitness center에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Q.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10년후의 제 모습은 지금보다 원숙한 직장인이 되어있지 않을까요?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래저래 많이 서툰 사

람이지만, 10년후쯤 되면 아마 회사일도, 제 개인적인 삶도 좀 더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Q.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에 몰두하시되,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연구분야도 넓은 시야로 본다면 좋겠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부터 들은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를 잊어버리고 완전 다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였어요. 한 가지에 몰두하는 집중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원이라면 유연한 사고 또한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도 여러분께 같은 조언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영광

연세대학교(박사) 토목공학과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원생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현재 한국타이어 연구1팀 virtual test research project에 속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자체 개발한 해석 프로그램인 HK-SMART를 활용하여 다양한 타이어 관련 동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해석 결과의 예측 성능을 높여, 다양한 조건에서 실제 타이어가 보다 목표 성능에 가까운 타이어로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사내 스터디 모임 등 지속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A 대학원과 동일하게 사내 Library 시스템의 ScienceDirect, SCOPUS 등의 학술 검색을 통하여 주요 저널의 최근 논문들을 꾸준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비정기적인 다양한 사내 세미나, 강의 등의 참여를 통하여서 타이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각 부서의 연구개발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연구소)를 최종 선택하게 되신 동기는?

A 저는 학부시절 건설환경공학을 전공하였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빠른 하중 속도를 받는 건설 재료의 동적 파괴 모의를 위한 솔버(solver)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의 연속성을 살려 구조해석용 솔버 개발 분야를 계속 진행해 보고 싶었고, 새로운 대상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중에 한국타이어에서 virtual test 분야 채용 공고를 확인하였고, 타이어의 재료적, 구조적 복잡성에 매력을 느껴 최종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회사(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연구소에서 식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나오고, 무엇보다 365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해주셔서 타지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항상 든든합니다. 또한, 현재 연구소가 위치한 테크노돔 완공과 더불어 회사가 연구부문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연구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마치 커다란 우주선 느낌의 신선한 연구시설과 더불어서, 각자맞은 분야에 몰입하고 연구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는 연구자로서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일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A 7시 ~ 8시 : 기상 및 아침 식사
8시 ~ 8시 반 : 독서 및 자기계발
8시 반 ~ 12시 : 회사업무
12시 ~ 13시 : 점심 식사
13시 ~ 13시 반 : 독서
13시 반 ~ 17시 : 회사업무 및 간단한 티타임(30분 정도)
17시 ~ : 퇴근 및 저녁 식사

Q. 10년 후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10년 후에는 한국타이어의 해석 기술이 이미 글로벌 타사들과 비교할 때도 탁월하게 자리매김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타이어 해석 전문가로서,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타이어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타이어 개발자들



과의 협업을 통하여 타이어 제품 개발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폭넓게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년 후에는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타이어보다 타이어 자체가 하나의 이동수단을 정의하는 개념이 더 보편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게 해석 지원 및 설계자 입장에서 타이어에 대한 폭넓고 선도적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마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것은 대학교 이후에 본인 나름의 큰 고민과 주도적 선택을 거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 좀 더 학문적, 기술적인 바탕에 투자하며

미래를 대비하시는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 막상 대학원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도 또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의 추억이나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원을 마친 입장에서, 대학원 과정 동안 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크고 작게 참여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것이 뒤 돌아보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후 사회에서 조금 더 본인의 식견을 넓혀주고, 새로운 것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재학시절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기에 그 시간을 즐기면서 본인의 분야의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통해
연구라는 분야를 이해하고
연구자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영

성균관대학교(석사) 기계공학과

**Q.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학원생들
에게 소개해 주신다면?**

A 연구팀 NVH part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뿐만이 아니라 노면-타이어-차
량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
진동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단품에 대한 소음과 진동 특성
을 무향실(Anechoic Chamber)에서
관찰하고, 타이어 변경에 따른 차량에
서의 영향을 파악합니다.

Q. 사내 스터디 모임 등 지속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A 연구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은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며, 학회 및 저널 등에 연구성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의 세미나를 통해 연구원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하는 소양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Q.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연구소)를 최종 선택하게 되신 동기는?

A 대학원에서 계측분야를 전공하면서 연구내용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로 진로를 생각했었고, 자동차 분야에 대해 오랜 기간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연구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연구소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전공한 분야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타이어를 통해 여러 자동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저의 기준에 부합한다 생각하여 최종 지원을 했습니다.

Q. 대학원 때 연구주제와 현재 회사(연구소)에서 하는 주제와의 연관이 있는지?

A 기본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통해 연구라는 분야를 이해하고 연구자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주제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업무는 아이템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 연구내용 중 표면정보를 진동신호를 통해 계측하고 그 신호를 해석하여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사과정에서의 연구내용은 타이어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계측하며 그 발생된 물리현상을 이해하는 부분 등 회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